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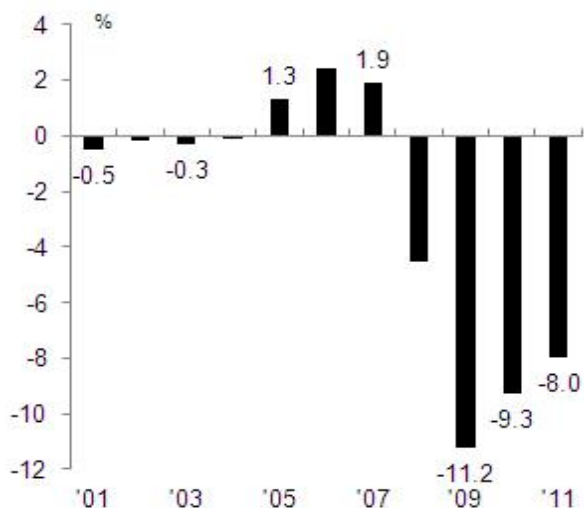
스페인 재정적자 비율 급등 발표로 구제금융설 대두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2011년 12월 말 출범한 스페인 신정부는 구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과소추정을 시인했으며 오류 없이 재정적자를 집계할 경우 동 비율이 8%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밝힘.
 - 스페인 구정부는 201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%로 추정했으나, 2011년 12월 30일에 출범한 신정부는 구정부 추정과는 달리 재정적자 비율이 8%에 달한다고 정정했으며, 불과 사흘 뒤인 2012년 1월 2일 8%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반복함.
- 스페인은 2011년 재정적자 비율을 6%로 가정하더라도 201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4.4%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추가 재정지출 긴축안이 필요함.
 - 스페인 신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거공약에 없던 6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대하였고, 약 150억 유로(약 22조 4,200억 원)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제시함.
 - 전문가들은 산술적으로 볼 때 201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(4.4%)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0억 유로 이상의 긴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- 더욱이 스페인 경제가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여건도 크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세수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존함.
 - 스페인 경제는 2011년 4/4분기에 이어 2012년 1/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음.
 - 씨티그룹은 2012년 스페인 경제가 2%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.
 - 스페인의 실업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데, 이는 유로존 17개국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 수준임.
 - 스페인의 실업률은 2011년 10월 현재 유로존 평균(10.3%)을 크게 상회하는 22.8%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유로존 내에서 가장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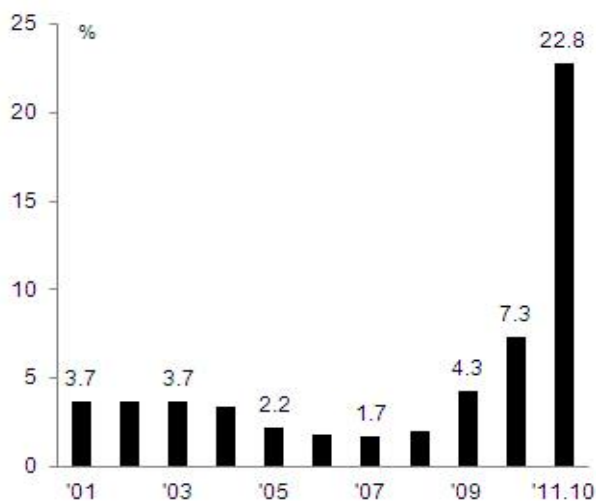
-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스페인에 대한 시장인식을 바꾸는 데 실패한다면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채권·대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,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음.
 - 로이터통신은 현재 스페인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함.

〈표 1〉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



자료: Eurostat.

〈표 2〉 스페인의 실업률 추이



자료: Eurostat.

■ 스페인의 재정적자 급증 발표 이후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과 국제통화기금(IMF)에 은행권 대출자금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금융시장은 다시 경색됨.

-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설을 공식 부인했으나 스페인의 국채 부도위험률은 상승함.
- 스페인 구제금융설은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를 부추겨 스페인 국채 금리와 스페인 국채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를 동시에 상승시킴.
 - 스페인 국채의 CDS 가산금리는 1월 4일 현재 전일대비 29bp 상승한 434bp를 기록함.
 - 그밖에 이탈리아 국채의 CDS 가산금리는 20bp 상승한 510bp를 기록했고, 헝가리 국채의 CDS 가산금리도 40bp 상승하여 690bp까지 치솟음.

(Reuters 1/3, Wall Street Journal 1/4)